



독서모임 뿌리 지정독서 <EBS 다크프라임 자본주의> 발제문

🕒 생성일	@2025년 1월 2일 오후 6:05
📅 독서 모임 일자	@2025년 1월 4일
☰ 지정도서	<EBS 다크프라임 자본주의>

시작 전 대화

1. 최근 근황을 가볍게 공유해 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을 얘기해봅시다.
2. 책에 대한 인상을 살짝 공유해 주세요.

책 속의 문장들

PART 1 빛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 결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 이는 곧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된다. /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돈이 빛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내가 대출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은, 곧 누군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PART 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 '재테크'라는 말은 명목상 '당신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어가라'는 말이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어서 은행에 당신의 돈을 쏟아부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금융시장에 들어가죠. /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융으로 돈을 버는 모습이 보인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곧 무슨 일이 터질 겁니다." 라구람 라잔(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 은행은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며, 이웃도 아니다. 그저 당신에게 금융상품을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PART 3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는 소비마케팅의 비밀

- 소비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또 다른 핵심 원리
- 사실 30세만 넘어각도 일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TV 광고를 잘 보지 않는다. / 어린 시절부터 광고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광고의 논리와 메시지를 그대로 내면화하면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 결국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 습관과 성향은 이미 수십년간 진행된 '키즈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소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켰다. 과거에 소비라는 것은 그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었다. / 결국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비해 자본주의 잉여생산물을 떠맡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 사람들의 내부에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라는 것이 있다. 현실의 나는 늘 이상적인 나를 따라가려고 애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행위로 소비를 하는 것이다.

PART 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아담 스미스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유명세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 스미스는 부자들의 무한정한 이익 추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결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인간 행동 규범의 틀' 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게 그 틀 안에서 부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상품'이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상품은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했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더 낮아지고, 상품은 쏟아져나올 수 있지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나중에는 기업도 자본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

각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세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경제는 관리의 수요가 있을 때만 완전고용을 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고 했어요. 케인스는 정부의 관리에 의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어요.
-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상대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이 나옵니다.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경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옳고 어떤 결정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문

1. 이 책에서 이야기한 [자본주의] 의 진실 중 내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호기심이 생겼거나 혹은 충격을 받거나 놀랐거나 하는 등,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 나는 부모님, 친구 또는 지인들과 돈 쓰는 방식 혹은 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누구랑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나요?



“금융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뤄서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바로 금융이해력입니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전문위원, 경제학박사



부모님과 돈 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횟수와 금융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외로 가끔, 즉 한 달에 1~2회 정도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학생들의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어릴 때 주식과 채권이 뭔지 알면 물론 유용하죠. 하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2003년 피셔 블랙상(Fisher Black Prize) 선정,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

3. 나의 소비 습관은 어떠한가요? 아래의 문장들에 얼마나 공감했나요?



1차적으로 여성들은 판매자와의 감정적 교류에서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판매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동조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판매자가 선뜻 감정적인 교류에 응해주면, 자신의 필요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매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단골이 되어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계속 소비를 한다.



남성들은 여성들과 '나약한 지점'이 다를 뿐,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 / 사람들은 아이패드 3를 아이패드 5로 업그레이드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똑똑해진 듯한 착각에 빠지죠. / 남자들의 방식이죠.

9. 책의 4장에서는 4명의 경제사상가 '애덤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 가장 이상주의자는 누구였으며 가장 현실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9. 책을 읽기 전에 자본주의에 대한 나의 이해도는 몇 점이었나요? 그리고 읽은 후에는 몇 점이 되었나요?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난이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0. 책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공유해주세요. 같이 대화를 나누며 더 깊게 이해해봅시다.

마무리 대화

1. 오늘의 대화는 어땠나요?

- a. 이번 모임을 신청할 때 기대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모임을 끝난 지금은 이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궁금해요.
- b. 혹은 이번 모임의 느낀점,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